

제주사회복지신문

>2015년 8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94호

사랑나눔푸드마켓 이용자 '10만'

6년간 월평균 1500여명... 주식류 등 기부 절실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주 사랑나눔푸드마켓' (대표 고치환) 이용자가 지난달 7일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09년 개점 후 6년 동안 매월 평균 1500여명의 이용자가 다녀간 결과다.

푸드마켓이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이나 생필품을 기부받아, 마켓 매장을 통해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장애인 등의 이용자에게 원하는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도록 하는 이용자 친화형 매장을 말한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이용하려면, 읍·면·동사무소의 추천과 제주시의 대상선정 과정을 마친 뒤, 마켓을 찾아오면 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매월 3가지품목을 지원받는다.

사랑나눔푸드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푸드마켓 이용객수는 1만4173명(누적 9만3438명)이며, 여기에 올해 7월까지 약 7000명이 물품을 지원받아 누적이용자수 1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물품제공액수로 보면 약 19억 5천여만원 정도이다.



▲ 푸드마켓 이용자가 개점 6년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쌀, 라면 등 주식류와 세제, 치약 등 생필품의 기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물품기부액도 지난해 약 4억3600만원(누적19억원)에 올해 약 1억원 가량의 물품이 더해져 2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용자수가 연일 늘어나는 것과는 달리, 이용자들이 주로 찾는 쌀, 국수, 라면 등과 같은 주식류와 치약, 세제 등의 생필품의

물량이 부족해 기부가 절실한 상황이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관계자는 "적은 양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식품 및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기부도 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활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 긴급복지지원조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조례' (이하 긴급복지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의로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됐다.

긴급복지지원조례의 제정은 지난달 1일부터 개정시행 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 6호에서 조례로도 '위기상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인정범위를 정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조례는 제2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는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학업·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가구 등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

체험홈 마련 '집 짓는 양' 모금사업 진행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이 '집짓는 양' 후원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에 필요한 체험홈 마련에 쓰인다.

NH농협 제주영업본부와 함께하는 이번 모금사업은 지역사회 내 체험홈 1개소 마련을 첫 목표로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금에 동참하는 방법은 '집짓는 양(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매월 1일과 15일 수거일에 맞춰 애덕의 집으로 전달하면 된다.



▲ '집 짓는 양' 모금 포스터 사진

한편 애덕의 집은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2017년까지 지역사회에 체험홈을 5개소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집 짓는 양 분양 문의: 724-8101>

사회복지인권사랑방 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권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사례 발굴, 접수 및 상담, 법률지원
- 인권관련교육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교육 등
- 사회복지현장 인권침해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및 전파
- 사회복지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이용
방법

- 상담콜 또는 E-mail을 이용한 초기상담 이후 지원방법이 제시됩니다.
- 상담콜 : TEL. 064)702-3782 (변호사 또는 담당직원이 응대)
- 전용 E-mail : tohic@naver.com (변호사 전용)
- *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집니다.

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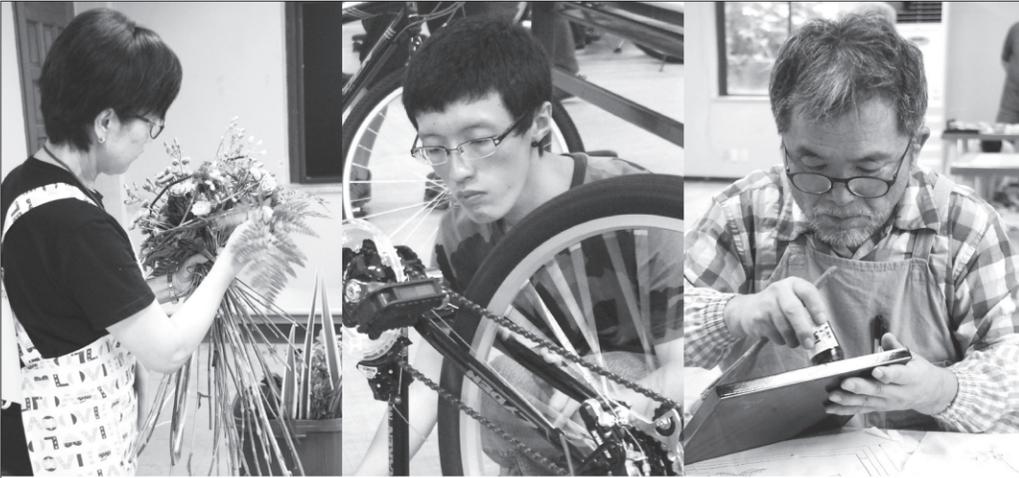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관용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운영위원회 위원

강병삼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고현수 대표(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경미 소장(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장소영(인권전문강사)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법률홍닥터' 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대회 참가자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성황리 마무리

16개 직종 101명 참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부형중)가 주관한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지난 달 24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우수한 기능장애인을 발굴·육성하고, 기능수준 향상과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에는 전자출판, 나전칠기, 화훼장식, 자전거조립 등 16개 직종에 10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 입상자 중 각 직종에서 1위를 차지(금상)한 선수의 경우 올해 열리는 제32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을 부여받았다.

▲ 다음은 각 직종별 금메달 수상자 명단 ▲양복: 김경숙 ▲자전거조립: 이광훈 ▲한복: 양경실 ▲그

림: 부정훈 ▲양장: 신윤성 ▲제과제빵: 배정환 ▲나전칠기: 한상찬 ▲전자출판: 김태희 ▲컴퓨터수리: 정진택 ▲가구제작: 이승만 ▲화훼장식: 김영순 ▲목공예: 양재근 ▲공로패 전수자 명단 ▲한계숙(제주국제대 관광식품외식학과) 교수 ▲고성필(한국폴리텍I대학 제주캠퍼스) 교수 ▲감사패 명단 ▲한국폴리텍I대학 제주캠퍼스 ▲김태윤(미래디자인) 대표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어린이집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대천·중문·예래동)는 지난 달 17일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

토론회에는 김종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자로, 진금옥(동산발어린이집) 원장, 양윤정(반석어린이집) 학부모, 현은주(은현어린이집) 교사, 양술생(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은 “제주도는 전국과 달리 공보육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도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유희공간 이용, 사회복지법인의 분할, 정관변경을 통한 목적사업 다양화 등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계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도 농아복지관	제9회 전도 농아 장기·비독대회	•종목: 장기와 비독, 오목, 알까기·루미큐브(이벤트 경기) •참가: 제주 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 누구나	1일(토) 제주도농아복지관 내	711-909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사용자교육 (회계초과정)	• 회계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초설정, 품의서 및 수입/지출결의서 등록 등 • 강사: 사회보장정보원 파견강사	일정: 11일(화) 10시~18시 장소: 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사용자교육 (회계·시군구보고 통합과정)	• 계정과목별 예산서 작성 방법, 보조사업에 따른 회계사업 관리 • 강사: 사회보장정보원 파견강사	일정: 12일(수) 10시~17시 장소: 협의회 2층 삼다수홀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사용자교육 (회계·시군구보고 통합과정-2일 과정)	• 회계 계정과목 설정,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장부관리 등 • 강사: 사회보장정보원 파견강사	일정: 13일(목) 10시~16시 장소: 협의회 2층 삼다수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9회 kt 제주배 전도 장애인 IT경진대회 안내	• 대상: 도내 거주 장애인 • 종목: 시각(전맹), 타 유형(약시 포함)	접수기간: 17일(월)~21일(금) 접수방법: 홈페이지 (www.jejurehab.or.kr)	702-0295
서귀포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자연염색 응용 상품 개발 전문가 양성과정	• 대상: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 • 내용: 자연염색이론과실습, 염색천을 활용한응용상품화 과정 등	교육기간: 9월 1일(화)~10월 23일(수) 참여방법: 방문 또는 전화 접수기간: 20일(목)까지	762-1400
제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14~16회기)	• 대상: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 • 내용: 직업선호도검사, 진로설계, 취업전략세우기, 취업지원접수 등	교육기간: 8월 3일(월)~9월 4일(금) 참여방법: 방문 또는 전화 (선착순 15명)	753-8090

7월 식품기탁자

- ▲금강수산유통=고등어 60kg ▲금강축산유통=돈반골 120kg ▲김치원=김치 60kg ▲꽃비나리는뜨락=떡 403개 ▲동원F&B제주=동원식품 3,205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등 1,563개 ▲소비자주부교실=생필품 241개 ▲신화유통주식회사=고추장등 260kg ▲암암영농조합법인=유기농빵 20봉 ▲이든이네=건어물 15kg ▲자연드림이도점=빵 389봉 ▲제성상회=햄등 317개 ▲제주보리존=보리빵 540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200팩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여행용품257개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447봉 ▲행복나눔마트=세제(1.5kg) 60개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660,000	3,72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360,000	360,000
복지사업후원	980,000	1,478,140
푸드마켓후원	2,450,000	884,2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편집인: 고경운
- 등록번호: 제주 라 01010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열림

“소원담은 기적의 편지 보내주세요”

JDC 후원·제주사회복지협의회 추진... 저소득 아동·청소년 대상

최대 100만원 지원... 8월 21일까지 접수

고사리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편지 속의 소원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어떨까. 마치 동화처럼 믿기 어려운 이 이야기도 도내 저소득 및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들에게 실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의 후원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

복지시설의 초·중·고등학교 대상 소원 이루기를 돕는 ‘기적의 편지’를 8월 21일까지 접수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개인적인 소원을 담은 손편지를 보내오면, 이를 심사해 소원을 이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적의 편지는 기본적으로 신청자(아동·청소년)

가 직접 쓴 손글씨 편지여야 하며, 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직접 작성한 편지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현물지원(생계비 및 의료비 등 현금성 지원은 불가)을 필요로 하는 소원’이며, 지원범위는 소원의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이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8월 21일(금)까지(당일 도 착분에 한함)이며, 접수는



‘제주시 청풍남 8길 12-1(화북1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기적의 편지 사업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심사는 JDC 및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추천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2차로 시행하며, 결과는 9월경 통보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소원 내용의 진실성, 개인의 성장 및 가족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효과성, 지원물품 용도의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반영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대회 성황

지역사회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한 ‘20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지역대회’가 지난달 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제주도가 주최하고 서귀포시·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복지위원,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등 200여명

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회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체계 개편’ 설명회를 비롯해, 제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라동복지지원협의체,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흥동복지지원협의체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2015 지적장애인의날 기념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협회장 김정현)가 주최한 2015 지적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제17회 권익복지대회가 지난달 23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행사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사회와의 교류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념식은 권리선언문 낭독, 표창,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권익복지대회에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연도 펼쳐졌다. 김정현 협회장은 “이번 행사가 발달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딤씨앗 통장을 후원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외계층 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디딤씨앗 통장 후원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딤씨앗 통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성인이 된 후 학자금

과 창업지원, 주거비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정책이다.

디딤씨앗 통장은 아이들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현재 후원자가 부족해 1731명이 가입자 가운데 352명의 아이들이 적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주민복지과(710-268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760-6448),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753-3703)로 신청하면 된다.

노인일자리사업 1호 ‘초가집 식당’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관장 휴완)은 시장형 노인일자리 1호 사업장 ‘초가집 식당’을 지난달 2일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인근에 개점했다.(사진)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며 음식을 만들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초가집 식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식당 운영 전반에 참여한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주메뉴로는 꿩고기를 넣은 손칼국수와 빕떡, 만두 등이 있다.

식당의 운영을 통해 나온 수익은 사업에 참여한 노인



의 임금과 노인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휴완 관장은 “이번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추가적으로 2호점, 3호점도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727-4500)

박주희 전 도의원
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취임

박주희 전 제주도의회이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 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및 제4대 제주장애인야간학교장으로 취임했다.

박주희 소장은 앞으로 중앙과 지역의 두 기관장을 겸직하면서 장애인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한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5대 제주케어하우스
홍영진 원장 취임

제주케어하우스 홍영진 제5대 원장의 취임식이 지난달 1일 이용자 및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홍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제주케어하우스, 능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제주케어하우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한동휴 이사장 선임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 한동휴 씨가 민간인 최초로 선임됐다.

한동휴 이사장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원에 치료사양성과정 제주지역주임교수와 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버프' 개원

학교 밖 청소년 찾아 상담·휴식·취사·문화생활 등 지원



제주성안청소년복지센터(센터장 박기반)는 지난 달 16일 탐동 해변공원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버프' (버스와 프렌드의 줄임말) 개원식을 열었다.(사진)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버프는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을 찾아 다니며 상담, 휴식, 취사, 문화생활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교육을 바탕으로 기능사업장과 연계한 취업알선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의 활동은 매주 화

요일과 목요일 2회씩 제주 시청, 탐동, 신제주 지역 등 청소년 밀집거점 지역을 방문해 이뤄진다.

김은영 팀장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한해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런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방안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버프는 성안교회 신자 2명으로부터 1억원씩을 기부받아 마련됐으며, 버스 내부에는 상담·휴식 공간 등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 문화생활 매체 및 의료용품 등도 비치하고 있다.



장애인 임신·출산 공감 콘서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 소속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띠앗(회장 장기자)은 지난 달 1일 발대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사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알리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는 청각·지체·척수·지적장애 부부

가 참여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표출하는 자리가 됐다.

장기자 회장은 "많은 도민의 참여로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이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닌 공동체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도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콩알반쪽 나눔 장터' 수익금으로 물품 기부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은 지난 29일 제주특별

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에 간장 54병(25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물품은 아라어린이집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희망을 나누는 콩알반쪽 나눔 장

터'를 열어 마련된 수익금으로 구매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열린 이번 장터는 집에 있는 작은 옷, 학용품, 책, 잡화 등을 직접 모아 불필요한 물건을 아껴쓰고 나눠쓰는 습관을 들이고, 환경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사랑을 버무리면 행복해요"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 달 25일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사업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스물다섯 가정의 부모,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 저소득가정을 위한 김

장을 담그고, 이를 통해 나눔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가족봉사자들이 만든 김치는 2,040포기로 8개 읍면동 장애인지원협의회와 17개 읍면동 읍면동사무소가 서귀포지역 저소득 가정 총 510가정에 전달했다.

감귤마카롱 200세트 제주광역푸드뱅크에 기탁



(주)시와월드(대표 우영진)는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

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에서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200만원 상당의 제주 꼬마하루방 '제돌이' 캐릭터 감귤마카롱 200세트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제돌이 감귤마카롱 출시기념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영진 대표는 "앞으로도 제돌이와 함께 나눔 문화에 동참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기탁 받은 물품은 도내 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하는 결식아동, 홀로 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꽃차문화진흥협회와 업무협약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미취업장애인의 직업능력향

상을 위해 '제주 친환경 야생화 수놓음 한마당' 야생초·꽃차 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 차 만들기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와 함께, 어울림터는 지난 6월 (사)꽃차문화진흥협회(협회장 송희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양기관은 꽃차 만들기 직종개발을 통한 근로장애인들의 정서안정 및 일에 대한 성취감을 얻는 데에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문인화팀 아동전원 서예대전 입상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영식)에서 삼성꿈장학재단 문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제주도서예대전 전원 입상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중고등부 은상 김수인(노형중1) ▲동상 김현정(제주여상1) ▲특선 이윤지(제주고2) ▲입선 현지환(제주일중2), 문지



우·박익새(제주동여중1), 백보영(제주동여중3), 현지민(제주중앙여고2) ▲초등부 ▲입선 김재령·김규리(인화초5).

소/식/마/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연합회(회장 원석철)가 지난달 28일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제4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활발한 봉사활동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활동도우미 보수교육 및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지난 14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교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제주지역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체험 교실을 실시했다.

이동복지관 '찾아와수다' 진행



제주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윤흥기) 주최하고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이 주관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찾아와수다' 활동이 지난달 16일 진행됐다.

'요리조리 남남튼튼' 초청 시식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은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요리조리 남남튼튼 사업'의 일환으로 친구 초청 시식회를 실시했다.

클린하우스 운영 실태 취재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미란) 구좌어린이기자단이 구좌읍에 소재한 클린하우스들을 찾아 환경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영상뉴스를 제작했다.

'가능성의 날개' 가족프로그램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진옥)는 2015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사업 '가능성의 날개를 활짝 펴자'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느영나영문화예술단 봉사단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20일 느영나영문화예술단(단장 김영중)을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했다.

사랑나눔 단합대회 '손에 손 잡고'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지난달 18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용자, 직원 39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2015 C.V.S. Family 사랑나눔 단합대회 '손에 손 잡고'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푸드마켓에 생필품 기탁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회장 강순희)는 지난 4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9기 지도자대회에서 사랑나눔 푸드마켓(대표 고치환)에 치약, 비누, 세제 등 생필품 300여개를 기탁했다.

(주)다울산업 후원물품 전달



헤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달 2월부턴 농업회사법인 (주)다울산업(대표 조성근)으로부터 정기적인 물품후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경영 실천 다짐 선포식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전직원과 이용자, 지역사회옹호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리경영 실천 다짐 선포식'을 지난 6월 27일 열렸다.

시론

‘예산제도혁신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증액여부를 놓고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심의가 또 다시 막바지 진통이다.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중심으로 당초예산 3조8천8백원 규모에서 4조1천3백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인데 75억원 규모의 도의회 증액을 두고 원희룡 지사와 의회 간 입장차이가 큰 것 같다.

하지만 작년 말 새해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에 의한 관례적 증액은 절대불가라며 초유의 부결사태를 겪었는데 반해 이번에는 도의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모양새이고 보면 합의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이 과정을 계기로 도민들은 차제에 예산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예산은 “투명성, 건전성, 타당성, 효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

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2008년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는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묻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없이 관례적 점증예산 편성을 답습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 원칙 지켜져야

연차적으로 4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중기예산계획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서면결의로 대신하고 도의회의 승인 절차 역시 거수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4년마다 세우고 있는 지역복지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상의 예산계획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계획 따로 예산 따로”라는 현상의 비판이 크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도 제한된 주민만 참여하는 행정주도형으로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왜곡시키는 것은 토호 정치 기득권세력이 직접 도지사나 예산담당관실을 통해 우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관행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자기혁신을 위한 고백이라

생각한다. 도의회 역시 예산혁신의 필요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예산이라 포장되지만 뜯어보면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묻지마 증액’ 예산이 없었겠는가. 도의원실에서 왜 특정 예산이 안 되냐며 공무원을 향해 협박성 고성이나 들리던 게 의회대상 아닌가. 이 광경을 목도한 의회공무원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것이 후문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증액의 순기능도 있다. 취약계층안정망 구축이나 필요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들이 찾는 곳은 도의원실이고 도의원들 역시 자기공약이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증액과 비목편성을 구태라고 하는 도지사의 처사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원도정 참여확대예산 제시

원희룡 도정은 향후 예산혁신을 위해 편성과정에 ‘참여확대예산’을 제시하였다. 도민의 참여를 반기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 도의회 역시 주민들이 예산혁신 참여를 전향적으로 반겨야 한다. 차제에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혁신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것이 협치다.

기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제도로 청소년 지켜주으~리



이정화
화북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해(害)가 되는 모든 환경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음란·폭력적인 영상물과 인쇄물, 주류·담배 등이 해당된다. 관련 법률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처벌 등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는 매체나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거나 혹은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들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어른에 의해 대다수 노출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어른들이 어른으로서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 발견하면 바로 신고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켜주리라는 어른들의 ‘의리’가 필요하겠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마련하고, 신고 대상의 위반 행위에 따라 신고자에게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신고의 목적이 포상금은 아니겠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우리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방어막과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칼럼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인간은 보통 36.5℃ 전후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여기에서 1℃이상 올라가게 되면 열이 있다고 하여 감염이나 다른 병적 상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게 된다.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더위나 추위에 특히 취약해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견디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 가족들이 휴가를 떠나고 혼자 남은 노인이 더위로 인한 열기를 견디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열이 나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일까? 열은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기제이다. 병을 일으키는 많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성 세균은 고온에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균을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우리 몸 자체가 열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를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다. 열이 나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아파서 열이 나는 것은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열심히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열이 나지 않는 상태가 건강한 것은 맞지만 열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무더위 이기려 말고 즐기자

지난 몇 개월간 생각지도 않게 해외에서 날아든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이 직·간접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의 여파인지 ‘열’이라는 말을 들으면 은근 불안해지긴 하지만, 열은 증상일 뿐 적이 아니다. 열정, 열기, 열성, 열광... 들뜨고 달아오른 상태를 표현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어찌 보면 열이 더해져야 흥도 나고, 열이 더해져야 삶이 더 역동적이 된다고나 할까. 물론 열이 과해 화(분노)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무더위가 절정이다. 인간의 정상체온을 넘나드는 열대야로 밤잠 설치는 곳도 적지 않은 듯하다. 무더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자. 더위도 우리가 살아있으니 느낄 수 있는 축복이라 생각하자.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해 열을 내듯, 지구가 우리를 살리려고 열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자. 언제 더위를 타박했냐는 듯 추위를 타박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이 더위가 올 가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확신으로 건강하게 견뎌내자.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시시한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정답인 듯해서 하는 말이다.

지적장애인의 날 특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명과 암

장애 특성 맞춘 지원 기대... 기초소득 보장 최우선 과제

올해는 발달장애인들에게 특별한 해다. 오는 11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자기결정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지난달 4일 지적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법의 명과 암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요. 대학 진학이나 취업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 어렵죠. 결국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도 안 되면 방구석에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기를 맞은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한 말이다. 사실,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정에서 그리 특별치 않은 이야기다.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은 타 유형의 장애인들보다 사회로 나가는 길이 더 좁다. 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비율이 높아,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을 배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교육, 직업, 주거에 대해 지원체계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

◆ 발달장애인법 11월 시행

이런 가운데 발달장애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4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지난해 4월 제정돼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된 것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법률의 내용에 명과 암을 구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미 있는 법률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2%부족한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법은 신체장애와는 다른 발달장애만의 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선 법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권리보장' 부분이다. '발달장애인의 권리(제3조)', '자기결정권의 보장(제8조)' 조항을 명시함을 통해 그 동안 소외받았던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제33조)'를 두도록 한 것도 큰 성과다. 중앙과 지역에 각각 설치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에 맞는 복지서비스 설계할 예정이다. 또 센터는 인권침해 등에 대응할 조사권 등도 가지고 있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발달장애인들의 특성



▲ 지난해 9월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을 감안해 지역마다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직 2% 부족한 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사자 및 관련단체가 우선순위로 꼽아왔던 기초소득보장과 일자리·거주시설 마련에 대한 조항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의무가 규정됐지만, 이를 채울 맞춤형 서비스도 현재저 부족할 상황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의 범주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한정하고 있어, 통상 발달이 지연돼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뇌병변장애인들이 정책수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 지역에서도 논의 지속돼야

한편 제주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 바 있다. 원희룡 지사가 내세운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공약과,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도장애인부모회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발표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공약들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해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장애성인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후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단 법 시행을 기다리며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원지사의 공약인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아우를지 대해, 장애인당사자,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강경균 사무국장은 "정책시행에 앞서 추진위나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당사자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상위법령에서 선언적으로 규정된 조항들을 조례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복지」 이야기 ④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채용 제도화 미흡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필수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경지역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경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2월 동경 내 노인·장애인·아동분야의 758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배치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경 내 사회복지시설

의 관리자 58%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관리자의 52%가 현재 시설 직원채용기준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이 채용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로는 고급 상담 지원, 이용자 중심의 지원, 이용자의 권리 옹호 등이 꼽혔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직접 규범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사회복지사 외에도 개호보호사, 케어매니저, 생활상담사 등을 두고 있다. 이 경우 각 영역마다 자격 취득 방법이 다른 상황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제선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자격을 얻어야만 사회복지업



▲ 일본은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제도화 돼 있지 않으나, 시설 및 기관은 복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를 맡을 수 있지만, 일본은 특별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각 분야마다 포괄적인 규범을 두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주거복지사, 문

화복지사, 사례관리사 등의 사회복지사가 맡은 다양한 영역의 직무를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일본 복지신문 ('15. 7. 22) <번역 = 전학봉 사원>

시설탐방

(69)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편안하고 따뜻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만들 것”

학대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 읍·면·동지역 홍보와 교육 역점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김미숙(가명, 73세) 씨는 지난해 4월 남편 장민철(가명, 70세) 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경찰을 찾았다. 남편 장씨가 술만 마시면 결혼 당시 가난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무시, 폭언, 폭행 등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신고 후 학대피해자 김씨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으로 인계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부부를 대상으로 사정과정을 진행했다. 수차례의 부부상담, 심층상담 등이 거처진 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고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서약서도 작성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느낀 부부는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노부부의 이혼위기가 신혼으로 바뀌게 된 사례다.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빛을 내는 순간이다. 물론 위 사례처럼, 모든 노인학대 문제가 긍정적으로 종결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도내의 모든 노인학대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해가고 있다.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들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노인인권 옹호기관이다. 이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노인인식 개선, 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정·운영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 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홍보를 등을 통해 사례수집에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호전문기관에는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7명,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 내 신고접수자는 109건, 상담횟수는 3296회에 이르고 있으며, 쉼터에도 입소·이용자 98명이 거쳐 갔다.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방문 및 지역홍보를 통해 감춰진 사례를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 습득력이 부족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리사무소, 경로당 등을 찾아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를 찾아, 인형극 및 효교육을 통해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에 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부속기관으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학대피해자

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있으며 아로마, 요가, 마사지 등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김선희 관장은 “현재 24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있지만, 우리 기관을 알지 못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운겨울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면서도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는 ‘붕어빵’ 처럼, 앞으로 학대에 처한 많은 노인분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5)

시원한 나눔을 실천하는 금강수산유통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듯 햇볕이 따가운 7월의 어느 날, 몽생이기자단 2기는 사랑나눔푸드마켓에 지속적인 나눔을 하고 있다는 금강수산유통(대표 안희민)을 찾아갔다.

금강수산유통은 7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250여가지에 이르는 선어, 냉동수산물을 제주도내 150곳에 유통하는 업체다. 지난해부터 처음 지인을 통해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알게 된 안희민 대표는 지금까지 28회 총 500만원의 고등어, 수산물 등을 지속적으로 기부해주고 있다.

또한 2014년 제주나눔대축제에도 식품기부 등을 통해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기부해왔다. 이 외에도 안희민 대표는 2010년부터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도 참여해 신체의 일부분



▲ 금강수산유통은 지난해부터 총 28회에 걸쳐 식품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을 기증하는 것에도 개의치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금강수산유통 안희민 대표는 “작은 나눔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뜨거운 나눔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름철을 계획해보면 어떨까.

※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계시판 알람' 내 사회복지신문을 방문하시면, 기사의 따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㉓

새로운 사회보장급여 제도

지난 7월 1일 새로운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시행됐다. 법과 제도가 국민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새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통합형 제도에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들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제도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표현되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가장 큰 특징은 지원하는 항목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세분화하여 필요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함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가 신설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명시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적거나 군입대, 해외이주, 교도소 수감 등 사유가 있을 경우와 부양 기피 혹은 거부의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벽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기준에 따른 급여 가능성을 타진해보길 바란다. 아울러 각 급여에 대한 문의는 복건복지콜센터 129(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를 이용하면 된다.